

대기업, 에너지 절약 앞장

석유화학을 포함한 10대 대기업들이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.

지식경제부는 7월13일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SK, LG, 삼성, 현대자동차, 포스코 등 10개 주요 대기업과 철강, 석유화학, 조선 등 12개 전력 다소비 산업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<여름철 전력소비절약 간담회>를 개최했다.

간담회는 전력수요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7-8월의 전력수요를 분산하고, 전기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민간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전력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했다.

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 및 국가적 에너지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기소비 절약에 적극 동참기로 합의했다.

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적정 냉방온도(공공기관 27℃, 민간 26℃) 준수,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행(격층운행, 저층운행 제한), 주간시간대 불필요한 조명사용 억제, 고효율 전력기기 사용, 대기전력저감 등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확대 등이 포함돼있다.

또한 전사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하고, 에너지목표관리 및 에너지경영시스템(EMS)의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09/07/13>